

지역 **메아리**

김제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행사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놀이 체험장인 2018년 제1회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12일 김제시에 따르면 어울림마당은 체험마당(먹거리체험, 볼록 화분심기, 아로마 허브 파우치키트만들기 등), 공연·놀이마당(등이리 공연, 비보이댄스 초청공연), 이벤트 게임(청소년 참여형 이벤트 게임) 등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적은 지역에 상관없이 청소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일 관람객을 위한 즉석 장기자랑 시간과 공연마당 특유의 레크레이션 및 놀이마당을 알차게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김제시는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난 2일부터 8일 말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12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건물 등 총 3만 4,927건으로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에 대하여는 항공사진을 활용·현지 전수조사를 하여 지적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실시·정비한다.

무단점유 재산 발견시 즉시 변상금 부과, 목적의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상수도시설물 소독

김제시 상하수도과는 새 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물을 대상으로 대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배수지 청소 및 소독은 김제시 관내 김제배수지를 비롯하여 7개 배수지이며,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수지 청소 및 소독은 관련법에 따라, 연 2회 실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으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저수조 내부 물때와 바닥 침전물 제거,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세정 등을 실시한다.

또한 배수지 주변청소, 잠금장치 확인, 각종 밸브 작동 확인 등을 실시하여 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는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새 일자리 발굴 총력

67개 사업 6043개 일자리제안사업 발굴... 우수사업 최종 4개 선정

완주군이 67개 사업 6043개 일자리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이중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을 선정,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완주군은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정책 및 규제개선 발굴보고회를 통해 67개 사업 6043개 일자리 제안사업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집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제안사업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62건, 일자리 창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제개선 제안은 5건이다.

완주군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위해 발굴된 67건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거쳐 14개 사업 3166개 일자리를 선발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4개 사업 124개 일자리를 선정했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최종 4개 사업은 ▲소신(소소한 신고) 있는 생활의 달인 ▲중식 취약영양관리 영양관리 도우미 파견 ▲락(樂) 드림, 청년 놀이단 ▲청년 취업 완주(完走) 프로젝트다.

심사는 외부 심사 위원단이 맡았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형 일자리가 다수 제안됐다는 평을 얻었다.

완주군은 선정 사업에 대해 관련부



완주군이 67개 사업 6043개 일자리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이중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을 선정,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서의 타당성 검토 및 2019년 본예산 반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보고회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정책 발굴 대회'로 확대 운영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 요구사항을 예산에 직접 반영시켜 일자리를 통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에도 힘쓰는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매년 일자리 정

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추진해 왔다."

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제안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보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5년에 이어 4년째를 맞고 있는 일자리 정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난 3년간 168개 사업 2829개 일자리 아이디어 및 정책을 발굴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공유경제 교육 특강

장난감도서관 등 운영

완주군이 공유경제 확산에 나섰다.

완주군은 완주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미래경제의 핵심 트렌드인 공유경제 서비스의 시대적 흐름을 읽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공직자, 관내 민간단체(재단·센터)직원, 협동조합 대표, 관심주민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교육 특강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진행된 특강은 서울시 공유경제위원으로 활동중인 고영(SCG대표)강사를 초빙해, 공유라는 말이 익숙지 않고 아직은 생소한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완주형 공유문화의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꾀려 했다.

이날 고영강사는 공유경제의 기본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유경제의 흐름, 다양한 국·내외 공공과 민간부분의 공유사례와 추진방법, 공유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요인, 공유경제의 세계적 현황,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완주군이 공유경제 확산에 나섰다.

명했다. 완주군은 지난 2월 공유도시 완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여럿이 함께 나누어 빌려 쓰고 사용하는 완주형 공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유사업으로는 재단법인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나눔공간이다.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공구, 여행용기, 행사 용품, 천막 등 26종 68개의 물건을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난감도서관, 농기계임대사업장, 청년쉐어하우스,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공간, 창업허브공간 등 다양한 공유활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투어패스카드 1+1 구매 이벤트

김제시, 14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

김제시가 오는 14일 벽골제관광안내소 앞에서 전북투어패스카드 1+1 구매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투어패스는 現전북도지사의 3대 시책 중 하나인 토탈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자유이용권으로 한옥마을권 및 자신의 여행일정 계획에 맞춰 할인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등 다양한 종류의 패스가 있고 1일권(8,300원) 기준으로 전북도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공용주차장 2시간 무료 사용, 특별한 인가맹점 최대 50% 할인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알뜰한 제도이다.

한편 벽골제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입장료 유료화 관광지로 전환됨에 따라 김제시는 관광객의 방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도와 벽골제 투어패스 자유이용권 시설통록 협약을 맺은바 있다.

또한 벽골제의 자유이용권 시설통록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전북투어패스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행사를 기획했으며, 14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전북투어패스 1+1 구매행사를 열어 투어패스 1장 구매 시 투어패스 1장을 더 제공하고, 모든 구매자에게 기념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주평화당 강병진 김제시장 예비후보 후보직 사퇴

민주평화당 강병진 김제시장 예비후보 후보직 사퇴



민주평화당 강병진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같은 당 정성주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강병진 예비후보는 12일 김제 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김제시장 후보군들이 난립하고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적어도 민주평화당만큼은 화합과 통합으로 시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당과 소속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결연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김제시는 지난 10여 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의 당이 달라 지역발전이 커다란 결실들이 되어 왔다."며, "정치적 철학과 소신, 능력 그리고 젊음과 비전을 고루 갖춘 정성주 후보가 김중회 국회의원과 협치로 찬란했던 김제시의 옛 영광을 재현하도록 시민들께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황재석 완주군생활야구협회장, 군의원 출마

황재석 완주군생활야구협회장, 군의원 출마



황재석 완주군 생활야구협회장이 군의원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완주군의원 당선거구(봉동·용진) 황재석(47, 무소속) 예비후보가 12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봉동·용진 지역 주민을 위한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날 황 예비후보는 "지역간 불균형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봉동과 용진은 태어나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고향"이라며 "둔산리자율방범대를 비롯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교류가 활발한 감점을 활용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강조했다.

특히 황 예비후보는 주요공약으로 ▲봉동읍내-둔산리 지역 균형발전(소통화합한마당, 주민상생협의체 구성) ▲만경강 관광 명소화 추진(둔치 꽃길 및 경관 조성, 레일바이크 설치) ▲용진읍 도로 정비사업 추진(초포삼거리~소양간 도로 확포장 및 인도개설, 대영APT~하이트 아파트 인도 및 산책로(독방) 개설 등이 있다.

황재석 예비후보는 "낮은 자세로 너 보고, 더 듣고, 한 발 더 뛰는" 완주군의원 황재석이 되겠다."면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든든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